

전일동향

전일대비 22.10원 하락한 1,495.20원에 마감

24일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일대비 22.10원 하락한 1,495.20원에 마감했다.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26.40원 하락한 1,490.90원에 개장했다. 환율은 미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발전소 공격 유예 결정으로 급락하며 1,495.20에 종가(15:30 기준)를 기록했다. 주간 장중 변동 폭은 12.20원이었다. 한편, 이날 외환시장 마감 시점의 엔-원 재정환율은 941.94이다.

전일환율변동	구분	시가	고가	저가	종가	평균환율 (매매기준율)
	달러	1490.90	1503.10	1490.90	1495.20	1498.30
	엔화	957.57	958.61	938.36	941.94	-
	유로화	1761.77	1762.80	1726.00	1735.27	-

* 시가/고가/저가/종가 : 달러는 익일 06:00 기준, 엔화 및 유로화는 15:30 기준

F/X(달러-원) 스왑포인트		1M	3M	6M	12M
	보장환율(수출)	-0.33	-3.59	-9.3	-17.79
	결제환율(수입)	-0.13	-2.4	-7.21	-14.33

*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,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
 *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,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(<https://www.ksure.or.kr/rh-fx/index.do>) 확인

금일 전망

휴전 협상 소식에...1,490원대 중심 등락 전망

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(-1.45원)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(1,495.20) 대비 0.15원 상승한 1,493.9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.

금일 환율은 미-이란 협상 분위기 속 군사적 긴장감에 따른 불안이 교차되며 제한적 하락 전망한다. 간밤 미 국방부가 약 3천명의 병력을 중동에 파견할 계획이라고 보도하며 한 때 강달러 압력 받았으나, 뉴욕장 마감 후 미국이 이란에 휴전을 제안했다는 소식이 보도되며 분위기가 전환됐다. 이스라엘 방송사 채널은 미국이 향후 1개월 휴전을 선언하고 이 기간에 15개 조항을 놓고 협상하는 방안을 이란에 전달했다고 전했다. 이에 지난 한 달간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를 이끌었던 중동발 불확실성이 낮아지며 오늘 아시아장에서 위험선호 심리 회복이 기대된다. 또한, 최근 달러/원 장중 움직임을 보면 국제유가와 유사한 패턴을 나타내고 있어 오늘 장중 휴전 기대감이 WTI, 브렌트유 하락으로 이어질 경우 원화도 동반 강세를 나타내 환율 하락 압력 받을 수 있다. 다만, 이란이 미국의 종전 요구사항을 수용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있어 시장의 불확실성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과 수입업체 결제 수요는 하단을 지지할 전망이다.

금일 달러/원 예상 범위	1489.00 ~ 1500.00 원
체크포인트	■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: -19862.74 억원
	■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(NDF) :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0.15원 ↑
	■ 美 다우지수 : 46124.06, -84.41p(-0.18%)
	■ 전일 현물환 거래량(종합) : 134.78 억달러
	■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: +264 억원